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도시

최병학 | 자치정책연구부장

지난 2003년 9월 13일 「전원·문화·국방의 모범도시」를 표방하면서 우리 지역의 숙원인 계룡시 승격이 이루어진 이후, 본원에서는 「계룡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수립 연구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북미지역(미국·캐나다)의 명성 높은 국방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계룡시 발전전략에 적용 가능한 특징적 모습들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펜타곤



펜타곤

펜타곤(Pentagon, 정오각형)은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국방도시로서, 군인·민간인 약 23,000여명이 근무하는 미 국방부가 있는 상징적인 도시이다. 총 8,7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약 25만 평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4,200개 시계, 691개 수도, 284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화장실, 230명이 근무하는 레스토랑, 2개의 카페테리아, 6개의 스낵바가 있다.

10만 마일의 전화선을 통해 매일 20만 회선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내 우체국에서는 120만 여건의 우편물을 취급하고, 도서관에는 3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의 1,700종의 정기간행물을 소장하여 일반인의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28km에 달하는 복도를 빌딩내 어느 지점에서든 7분내 도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유명한 펜타곤 관광프로그램은 1976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도보관광과 무료단체관광이 가능하다. 도보관광은 매시간 실시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약 1마일정도 걸으면 약 90분 정도가 소요된다.

펜타곤 개요	
공사기간	1941. 8 ~ 1943. 1
총면적	583 에이커(정부:296, 민간:287)
건물면적	중앙정원: 5에이커(6,121평) / 건물: 29에이커(35,496평)
주차장면적	200에이커(약 25만평: 8,770대 주차)
건축공사비	약 5,000만 달러
총공사비	약 8,300만 달러



알링턴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

포토맥강에 걸쳐있는 알링턴 기념다리를 건너면 버지니아쪽으로 펼쳐진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는 6·25 참전에 전사한 무명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특히 헬멧과 판초우의를 입고 전진하는 모습을 한 한국 참전용사들이 눈에 띈다.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걸프전까지 참전한 용사들 20만명이 넘는 전사자가 잠들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조문을 위해 이곳에 다녀가는 방문객이 연중 그치지 않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웨스트포인트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 西點)는 미국 뉴욕주의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의 명칭이나, 이곳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데에서 미육사 명칭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웨스트 포인트는 허드슨 강변의 뉴욕시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전체 캠퍼스 면적은 16,000에이커이고 약 4,000명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수당 생도수는 1:8 정도이다. 1802년 설립

이후 약 50,000명의 장교를 배출했으며 졸업생 가운데에는 아이젠하워나 맥아더와 같은 저명한 정치가나 고위장성이 많다.



미육사 박물관 전경

민군협력을 중시하는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입구에 방문자안내센터(USMA Visitors Center)를 마련하여 이곳에 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위한 출발점으로 역사관·정보영상관·홍보관을 비롯하여 휴게실, 기프트숍(기념품 선물가게), 자체 숙박시설, 영화관과 버스관광 가이드 등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1989년에 개소하여 졸업생, 친구, 생도들의 가족, 학생단체, 시민단체, 관광객 등 연간 3백만명이 방문하는 뉴욕의 3대 관광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육사 박물관(West Point Museum)은 생도들의 학문, 군사적·문화적 교육을 지원하는 곳으로 군사역사와 미육군사관학교의 역사, 미국의 군사학교, 전쟁의 평가, 미국군대의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군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돕고 있다.

아나폴리스

메릴랜드주의 주도인 아나폴리스(Annapolis)는 워싱턴에서 동쪽으로 65km에 있는 아담한 항구도시로서, 도로를 따라서 있는 우아한 주택들과 미해군사관학교의 캠퍼스와 함께 아름다운 주 의사당이 있는 인상적인 국방도시이다

원래 미해사는 1845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 아나폴리스는 바로 미해사와 동일시될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으며, 해변도시로서 고풍스런 건물들이 많다. 또한 데미무어가 출연한 G. I. 제인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바다에 닿아 있는 넓은 캠퍼스에는 미해군의 역사자료를 한데 모아 놓은 해군박물관과 메모리얼 채플이 있으며, 특히 Amel-Leftwich 방문객센터는 다채로운 역사관·전시관을 비롯하여 기프트숍, 편리한 스낵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미해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나폴리스 채플 안에 있는 John Paul Jones의 전함은 유명한 관광거리이며, 아나폴리스가 역사적인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파커하우스가 있어 미국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보호를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명소도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Colorado) 주도(州都)인 덴버市 다음으로 큰 스프링스시는 인구 50여만명, 해발 1만 4,110피트(약 4,300미터)의 파익스픽 준령을 병풍 삼아 로키 산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첨단 국방도시이다.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미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로서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최대의 관광명소가 되고 있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바로 미공사를 지칭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국방도시로서 명성을 자랑하는 데는 북쪽으로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덴버시의 첨단 방위산업체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록히드 마틴사는 우주항공분야에서 각종 전투기는 물론 로켓, 우주셔틀, 위성운반체를 생산하는 등 최첨단 무기의 젖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문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시청 통계에 따르면 4만 5,000명 이상이 국방산업에서 연 2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군사훈련·건설에 따른 연간 지출액도 5억 달러를 넘어 콜로라도 스프링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한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국방도시가 되고 있다.

웨스트포인트 미육사, 아나폴리스 미해사와 함께 미국 3대 사관학교 중 하나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공사에는 방문객들이 맨 먼저 비지터센터를 찾으면 창설 당시부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고 생도들의 각종 세복, 기숙사 등의 시설모형, 공사 전경의 조각모형 등의 전시품을 볼 수 있다. 매 30분마다 상영되는 약 15분간의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무료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각종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방문객 센터의 오른쪽 산책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공사의 상징물이며 세계적 건축물로 꼽히는 공사 교회당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뾰족한 첨탑이 보인다. 이 교회당은 공사 방문 시 빼어 놓을 수 없는 곳이며 연중 약 2백만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한다.

웨스트포인트 미육사, 아나폴리스



동쪽으로는 끝없는 대평원으로 이어져있는 연간 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한 동시에 천혜의 요새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요충지이기도 하다. 미공사는 물론 미군 전술전략의 두뇌부부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우주방공사령부, 퍼터슨 공군기지 등이 위치해 있다.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중 3백일 이상의 쾌청일을 자랑하는 최적의 기후, 낮은 범죄율 등 여러 매력적인 조건들과 함께 미국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서쪽에 유명한 '신의 정원(Garden of the Gods)'이 있는데, 옛날 이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신성시하던 유티(Ute) 인디언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과연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이름을 인정게 하는 아름답고 기묘한 풍경을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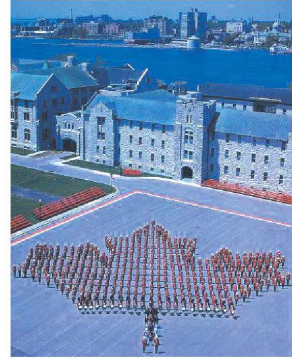
킹스턴

킹스턴은 1812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요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국방도시이며, 원래 이곳은 왕립 해군조선소 자리였는데 킹스턴 동쪽으로 왕립군사대학(Royal Military College Canada)이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은 1812년 전쟁 이후 처음 요새를 쌓기 시작하여 1848년에 완성되었다.

그리나 캐나다 왕립군사대학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곳은 마텔로 타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박물관뿐이다. 안에는 학교와 해군조선소의 역사와 함께 무기과 병기들이 전시된 왕립군사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킹스턴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라 살르(La Salle)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캠퍼스가 펼쳐진다.

캐나다 왕립군사대학은 요새로서, 이는 만들어진 이후 한 번의 공격도 받지 않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광질인 여름에는 당시의 군사복장을 한 병사들이 매주 수요일 및 토요일 7km에 신셋 세레모니를 펼치는데, 온타리오 호수와 포트 헨리가 어우러진 석양은 빼뜨리기 어려운 장면으로 유명하다.



미·캐 국방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계룡시 발전방향 및 장기비전 수립의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장차 계룡시가 「국방보병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독창적인 민군화합형 최첨단 국방보병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는 민·군 연계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의 창출 및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군수 관련산업 유치전략 추진, 민군화합을 위한 계룡(軍)문화 축제의 활성화 추진, 제대군인촌 및 국방연구센터 건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추진중점은 고급 군사(과학)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민군화합 구축 및 현역·군가족·세대군인 간의 신린우호를 다질 수 있는 향군(鄕軍)문화 발전, 효율적인 민·관·군 정책협의체 운영 및 민·관·군이 지역공동체 형성의 주체적 역할·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대책 마련, 국방보병도시로서 지역발전 이진을 획기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국방특구" 설치 기반조성 등이다.